

이기는 삶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상대에게 계속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하여 상대방의 불쾌한 언행에 대하여 말하지 못하거나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상대방의 부탁에 대하여 싫다는 소리를 못하여 낭패를 보는 일이 종종 있다. 상대가 불쾌하게 생각할까봐, 괜히 거절했다가 서로의 사이만 서먹해질까 염려가 되어서다. 하지만 때때로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싫은 것은 싫다고 단호하고 간간하게 굴기도 해야 한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고민이 된다. 그렇지만 나의 불편함과 손해가 크고 나의 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라면 차라리 간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낫다.

좋은 사람으로 남기 위하여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계산적인 사람이 되어 나의 정당한 몫을 지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만약 상대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거나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나의 요구와 거절을 이해해 줄

것이고, 나의 요구와 거절에 대하여 빈정대는 사람이라면 애써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없다. 관계를 깨뜨리지 않기 위하여 타인의 몫을 넘보지는 않아야겠지만 나의 삶을 위하여 자신의 몫은 지켜낼 줄도 알아야 한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지 마라. 모든 사람과 잘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한 스트레스 상당히 커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은 당연히 있는 법 누구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지는 못해

지낼 수는 없는 법이다.

사람들에게 잘 대해주는데 왜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은데, 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생길까? 하고 고민하지 마라. 나의 주위에 열 사람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두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 한 사람은 나를 매우 좋아하며, 일곱 사람은 별 관심이 없

다. 특별한 이유가 있어 나를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도 그러한 경우도 많다. 나도 마찬가지다. 큰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당연하

다고 받아들여라. 가끔 개혁과 혁신을 시도하는 리더들이 소수 구성원들의 불만에 속이 상하고 의지가 꺾여서 의기소침(意氣銷沈)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 근본마음에는 모두에게 지지받고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리더의 생각에 그 혁신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여겨도 조직의 모든 구성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따르지는 않는

다. 일반적으로 아무리 훌륭한 비전을 제시해도 20프로는 전폭적으로 따르고, 20프로는 크게 반대하며, 60%는 중간지대이다. 그 60%의 대부분이 리더를 지지하는 쪽으로 움직이면 성공이고, 저항하는 쪽으로 움직이면 실패다. 그렇지만 리더가 아무리 노력해도 반대하는 20프로를 바꾸기는 어렵다. 그들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가치관이 근본적으로 다르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불이익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들에게까지 사랑과 지지를 받으려 한다면 그것은 망종이다. 그들로 인해 의지가 꺾이고 감정은 상할 수 있으나 받아들여야 한다. 역대 어느 선각자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는데 하물며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겠는가? 반대가 두려워서 자신의 소신대로 일을 진행시키지 못한다면 그는 그저 무능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두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라.*

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By nature, all men are God 본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오직 아들이 하나가 아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인간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공의롭고 모든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신분이나 계급 같은 계급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 God has not only one son. To Him all men are His sons equally (Psalms 82:6, Deuteronomy 14:1, 1John 3:1). He is righteous in His dealings and treats all men equally, for there is no caste system such as rank or class in the Kingdom of God.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며 하나님 앞에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자연의 법칙이 혈통의 법칙이므로 하나님의 아들들도 역시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똑같이 하나님이다.

▶ So, we are all God's children equally, and have the privilege of equality before Him. Moreover, because the law of nature is the law of lineage, God's children are God, as is. So, we are all God equally.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세상에서 자신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자신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을 당하지 않고 영생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도 아니요 영생을 주지 못했으므로 우리의 구세주도 절대 아니다.

▶ Nevertheless, Jesus said that God gave His only son to the world so that whoever believed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John 3:16). But, Jesus can be neither the only son of God nor our Savior due to not giving us immortality.*

by Alice

정경과 외경을 조합해서 본 구약성서 속 인물의 활약상

고조선 사회의 구성원들은 서방에서 이주해온 도래민인가 토착민인가?

우리는 이 물음에 답하기 위해서는 노아홍수라는 전지구적 홍수사건을 떠올려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4400년(BC2400년) 전 노아홍수가 일어나서 지구상에 편만했던 수십억의 인류가 수장되고 노아의 여덟 식구만 방주를 타고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물이 빠지고 물이 드러날 때에 방주는 터키의 아라랏산에 안착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BC2400년)부터 인류 문화가 다시 시작되고 아라랏산을 기점으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낳은 자식들이 씨족을 이루고 각기 삶의 터전을 찾아 이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조선 국가의 구성원이었던 한민족의 뿌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 세 아들 중에 장자 명분을 계승한 셈에 이르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한반도의 초기국가 고조선 백성들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터키에서 해돋는 동방 땅 끝 땅 모퉁이까지 이주해온 도래민들임에 분명합니다.

물론 대홍수가 끝나고 곧 바로 터키에서 한반도로 이주한 것이 아니라 1400년간 유리방황하다가 지금으로

부터 약 32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소라 땅에서 동으로 동으로 이주하여 한반도에 도착하여 고조선을 설립한 것입니다.

고조선 역사를 알려면 먼저 노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다

고조선 나라를 건립한 구성원의 조상이 노아의 장자 「셈」이요 셈의 후손으로서 검은머리 사람들이라고 자칭하는 수메르인이기에, 셈의 아버지 노아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 또한 한민족 뿌리의 역사 공부에 되는 것입니다. 성경속의 인물에 대해서 구적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와 조합하여 아래와 같이 재구성해보았습니다.

아담과 헤와는 세 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큰 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 그리고 막내 아들 셋입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함으로써 이후로 가인과 셋의 후손에 의해서 사람의 종족이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가인(게난: 성을 쌓는 사람)은 마할랄렐을 낳고 마할랄렐(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야벳을 낳고 야벳(이랏: 도시사람)은 에녹을 낳고 에녹(성전에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힘센 하나님의 사람)는 라멕을 낳고 라멕(오만하고 강한 사

람)은 노아를 낳았습니다.

라멕은 아다와 쉴라 두 아내를 취하였는데, 첫째 부인 아다는 아발(목축업의 선조)과 유발(노아의 본명: 통소와 수금을 다루는 사람)을 낳고, 둘째 부인 쉴라는 두발가인과 나아마(땀)를 낳았습니다. 유발이 되는 노아는 498세에 580세의 나아마(두발가인의 누이)와 결혼했고 노아 500세에 첫아들 함을 낳습니다(창5:32). 노아 502세에 둘째아들 셈을 낳았습니다(창11:10, 창7:11). 그 이후 노아 505세에 셋째 아들 야벳을 낳았습니다.

금속으로 각종 날카로운 기계들을 제작하는 대장장이의 조상 두발가인의 누이 나아마를 노아의 배필로 하나 넘겨서 준비하셨던 것은 거기에 깊은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조선 시대에 청동기를 사용했지만 고조선 백성들의 선조 노아 시대에는 이미 동철을 사용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한 죄값으로 가인은 세상의 딸들만 낳았지 대를 이어 아들을 낳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가인의 딸들은 셋(아담의 셋째 아들)이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유혹하여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들을 일컬어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사람의 아들들(에노스) 중에 마할랄렐이 있었는데, 그 후손에서 노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가 거의 일치하는 유사성을 보이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는 것입니다.

한편 노아의 부인 나아마가 노아보다 82살 연상이므로 나아마의 오라버니 두발가인은 노아보다 적어도 82살 이상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유발)의 아버지 라멕이 장가들기 전의 80세까지는 적대관계에 있던 가인의 족속에게 지배를 당하고 가족을 바치는 굴욕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라멕 80세에 둘째 부인 쉴라로부터 첫째 아들 두발가인을 얻게 되는데, 그 두발가인이 장성하여 최초로 동철을 이용하여 날카로운 기계를 만든 것입니다. 이때부터 라멕은 쇠할살촉과 쇠창을 무장하고 가인의 족속과 결전을 벌였고 그 전쟁터에서 가인은 라멕의 화살에 맞아 900살 나이에 전사하였습니다.

이후로 라멕은 자신의 선조요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을 죽인 것에 대해 크게 죄책감을 느끼면서 살게 됩니다. 가인을 죽인지 사오백 년이 지나자 하

나뉘면서 라멕에게 나타나 명령하기를 498세의 노아와 580세의 나아마의 짝을 이루게 하고 나 여호와를 위해 높은 산에서 나무를 벌목하여 집을 짓는 노아를 도와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주로 큰 강가의 평지에서 진흙으로 집을 지었는데, 높은 산에서 집을 짓게 되면 당연히 진흙을 구할 수 없기에 벌목한 나무로 집을 짓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마귀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분부를 받드는 라멕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마귀가 물로써 세상 사람들을 모조리 수장시켜 남김없이 다 죽이려는 계획을 내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노아로 하여금 물에 뜨는 배를 만드는 일을 숨겨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방주의 설계를 비밀리에 노아에게만 맡기고 방주의 형태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 약 100여 년 동안 나무를 벌목하여 일정한 규격에 맞추어 자르고

보관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또한 방주를 짓는 데 사용될 못과 연장은 엄청난 양의 동철이 요구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라멕의 첫째아들 두발가인은 동철로 무기를 제조하여 약 500년 동안 전세계의 종족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라멕이 목조건물을 짓기 위해 많은 양의 동철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당시 풍습에는 자식에 대한 아버지의 권한은 하나님과 같아서 절대적이었습니다. 결국 두발가인은 아버지의 요구에 불순종하고 불만을 표하자, 이후 아버지 라멕의 축복을 받지 못한 두발가인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백태선 기자

참고문헌: 『숨겨진 성서』, 윌리스 반스톤 저 / 이동진 역

새책이 나왔습니다

도서출판 해인

‘삶’이라는 苦海^{고해} 쉽게 건너가는 이야기

이긴자를 만난 사람들은 정말 행복하다

독후감을 모집합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소감이나 하고싶은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사례를 드립니다. 분량이 적거나 많거나 아무 상관 없습니다. 구세주 하나님을 위한 일은 어떤 것이더라도 그 의미가 상당히 소중하고 큼니다.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고보 알라딘에서 판매 중
당신의 삶이 바뀔 거예요!!

